“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AI 인재양성”… 첫 광주전략회의

시장 등 참여 정책 논의 플랫폼
AI영재고·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실무협의체 꾸려 지속적인 논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9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서 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전략회의가 첫 회의를 열고 뿌리부터 튼튼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에 지역민 모두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광주전략회의는 시정 주요 결정권자인 시장·시의회의장·시교육감이 참여하는 정책논의 플랫폼이다. 회의 주제에 따라 국회의원,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주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남구 송하동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제1회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시의회의장·시교육감·국회의원·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뿌리인 초중등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인공지능 영재학교 유치·설립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재 양성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유기적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4차산업 핵심 인재양성 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체계적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만들어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최대한 늘리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흥미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공지능 영재고와 인공지능 마이스터고 설립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가칭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략회의는 교육기관과 입법·행정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남해군이 전남 여수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

남해군-여수시 자매결연

해저터널시대 공동발전 도모

상호 협력 체계 긴밀히 구축
내년 해저터널 공사 본격화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는 지난 29일 여수시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향후 펼쳐질 해저터널 시대를 맞아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남해군과 여수시는 그동안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를 위해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전남과 경남지역 9개 시·군으로 결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활동을 같이 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다.

남해군과 여수시는 2023년 본격적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를 앞두고 자매결연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더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게 됐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양 시·군 민간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상호 간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탄소중립 '도시바람길숲' 조성

200억 예산 투입

경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숲 조성을 본격 시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황성공원 및 동천~황성 철도폐선구간에 9억1200만원 예산을 들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달 중 착수해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공사기간은 용역 완료 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며, '숲속의 경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디지털플랫폼정부 울산 전략수립 보고회

시민 중심 행정 혁신

울산시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울산 전략수립 전담팀(TF)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 울산 전략수립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새 정부의 디지털 기반(플랫폼) 정부 구현 공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행정 효율성과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추진전략은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 민원서비스와 정보체계(시스템) 현황 조사, 전문가 토론회, 관계자 회의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상(비전)과 목표(4개 항), 추진전략(2개 분야), 세부사업(26개 과제)으로 짜였다.

이상(비전)은 '시민중심 행정혁신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울산'으로, 목표는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지역형 디지털 기반(플랫폼) 구축 ▲기업·정부 상생형 기반(플랫폼)의 혁신 생태계 조성 ▲융합형 정보 공유 및 협업 활성화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 강화로 설정됐다.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디지털 기반(플랫폼) 구축 및 전환 분야는 ▲울산형 디지털 집현전 통합 기반(플랫폼) 구축 ▲디지털 복제(트윈) 기반 틀(프레임) 구축 ▲정보보안 기반(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점(허브) 구축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및 상황대응 기반(플랫폼) 구축 등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함평 관광지, '무장애 관광명소' 탈바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선정

전남 함평의 명품 관광지가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무장애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함평군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함평군 관광지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에 선정된 관광지는 함평엑스포공원,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자연생태공원 등 3곳이다.

이들 관광지에는 각 5억원씩 총 15억원(국비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 개선은 물론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서비스·콘텐츠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제반 사항을 함께 개선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인 돌머리해수욕장을 비롯해 함평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은 함평 대표 관광지로 연간 7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전남·광주권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고 즐거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현장 컨설팅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전남)=양수녕 기자

지역 이모저모

거창군

산불방지 '드론감시단' 운영

거창군은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산불드론감시단은 2개 조 8명으로 구성되어 열화상 드론 1대와 일반 드론 1대를 운영해 산림연접지 내 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방송을 송출해 산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진도군

올해의 SNS 유튜브 '최우수상'

전남 진도군은 '제8회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진도군은 2020년부터 동일 부문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이어갔다. 또 지난 10월 '2022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진도(전남)=양수녕 기자

부산시

'지방투자 아카데미' 첫 수상

부산시가 올해 3조원대 투자유치로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산시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2022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지방투자 촉진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시는 2011년 지방투자촉진사업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시

이동노동자 공공쉼터 확대

광주시는 산하 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출연기관·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공공쉼터를 12월 1일부터 확대·운영한다.

이동노동자는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업무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면서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일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대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쉽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있는 공공기관을 공공쉼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쉼터는 시청·광주도시공사 등 13개 기관 총 34곳이다. /광주=양수녕 기자